

시편 제119편

신성근 신부

제119편은 시편집에서 가장 긴 시편으로 ‘알파벳 노래’로서 ‘율법 시편’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교훈적인 의도를 지닌 ‘교훈 시편’으로 분류되며, 연중 제6주일 나해와 제17주일 가해 화답송으로 불린다.

이 시편에서는 ‘율법’으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고 노래한다.

1. (118) (알렙)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2.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참으로 행복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법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다.

* 루카 11,28 :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신명 4,29 : 거기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 될 것이다.

2역대 31,21 : 그는 하느님의 집과 관련된 일이든 율법이나 계명과 관련된 일이든,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거두었다.

3.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

4. 당신께서는 규정을 내리시어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5. 아, 당신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저의 길이 굳건하였으면!

법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복이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6. 그러면 당신의 모든 계명을 바라보며 제가 부끄럽지 않으리이다.

7. 제가 의로운 법규를 배울 때에 당신을 올곧은 마음으로 찬송하오리다.

8. 당신 규범을 지키오리다.
저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다. 법을 지켰으니 벌하지 마시고 지켜주시기를 청한다.

9. (베트)
젊은이가 무엇으로 제 길을 깨끗이 보존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0.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 계명을 떠나 해매지 않게 하소서.

‘젊은’이는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벗어나게 된다.

11.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당신 말씀을 간직합니다.
12. 주님, 당신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제게 당신 규범을 가르치소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즉, 말씀대로 살면 제 길을 강수 있다. 주님 말씀이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켜준다.

* 다니 7,28 :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놀라 얼굴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루카 2,19 :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2,51 :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13. 당신 입에서 나온 모든 법규를
제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14. 온갖 재산을 얻은 듯
당신 법의 길로 제가 기뻐합니다.
15. 당신 규범을 묵상하고
당신 길을 바라보오리다.
16. 당신 규범으로 제가 기꺼워하고
당신 말씀을 잊지 않으오리다.

재물을 얻으면 기쁘듯이 말씀으로 기뻐야 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익히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선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주자주 묵상하고 익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잊지 않는다.

* 지혜 7,11 :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로마 7,22 :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17. (기멜)

당신 종에게 선을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을 지키오리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에게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한다. 도우심 없이는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18.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 가르침의 기적들을 제가 바라보오리다.

19. 저는 이 땅에서 이방인일 뿐

제게서 당신 계명을 감추지 마소서.

20. 당신의 법규를 늘 열망하여

제 영혼이 갈망으로 지칩니다.

눈을 열어 주시어 말씀을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십사 청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외롭고 고달플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21. 당신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당신 계명을 떠나 해매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22. 모욕과 멸시를 저에게서 치우소서.

저는 당신의 법을 따랐습니다.

23. 권세자들이 모여 앉아 저를 거슬러 말하여도

당신 종은 당신의 법령을 묵상합니다.

교만하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곳곳하게 살아간다.

24. 당신 법이 저의 즐거움이며

저의 조연자입니다.

25. (달렛)

제 영혼이 흠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려 주소서.

주님의 법이 삶의 기쁨이며, 지표이다. 그러니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자신을 구해주십사 청한다.

26. 저의 길을 말씀드리자 당신께서는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27. 당신 규정의 길을 제게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들을 목상하오리다.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아뢰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규정을 깨우쳐 주시면, 그 행하신 일들을 목상하며 살 것을 다짐한다.

28. 제 영혼이 시름으로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일으키소서.

29. 거짓의 길을 제게서 멀리하시고

당신 가르침으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짓된 자들의 놀림으로 힘들어하는 자신을 도와주시고, 거짓된 길 곧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청한다.

30. 성실의 길을 제가 택하고

당신 법규를 제 앞에 세웠습니다.

31. 주님, 당신의 법에 매달리니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32. 당신께서 제 마음을 넓혀 주셨기에

당신 계명의 길을 달립니다.

성실하게 주님의 법대로 살면 죄에 빠지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기에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신명 11,22 :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너희가 꼭 지키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걷고 그분께 매달리면,

33. (혜)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제가 이를 끝까지 따르오리다.

34.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35.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시기를 청한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법을 지키는 행복한 삶이다.

- * 예레 9,23 : 자랑하려는 이는 이런 일을, 곧 나를 이해하고 알아 모시는 일을 자랑하여라. 나는 과연 자애를 실천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주님으로 이런 일들을 기꺼워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36. 제 마음을 잊속이 아니라

당신 법으로 기울게 하소서.

37. 헛된 것을 보지 않게 제 눈을 돌려 주시고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시어 저를 살려 주소서.

38. 당신을 경외하도록

당신 종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소서.

탐욕이나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법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면 살 수 있기를 다짐한다.

- * 이사 33,15 : 의롭게 걷는 이와 정직하게 말하는 이 강압으로 얻는 이익을 업신여기는 이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제 손을 뿌리치는 이 살인하자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이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이

39. 당신의 법규가 좋으니

제가 무서워하는 모욕을 치워 주소서.

40. 보소서, 당신의 규정을 애타게 그리니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살려 주소서.

주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당할 수 있는 비방이나 모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지켜주십사 청한다.

41. (와우)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 구원이,
당신 자애가 저에게 다다르게 하소서.

42. 그러면 저를 모욕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리니
제가 당신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이들 특히 적대자들의 비방을 들을 수도 있다. 이
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신뢰가 필요하다.

- * 마태 10,19 :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
다.

43. 당신 법규에 희망을 두니

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결코 거두지 마소서.

44. 저는 항상 당신의 가르침을
길이길이 지키오리다.

주님의 진리이신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청한다. 그래야 길이길이 곧 ‘항상’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45. 당신 규정을 찾으니

저는 넓은 곳을 걸으오리다.

46. 당신 법을 임금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으오리다.

47. 저는 당신 계명으로 기꺼워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48. 사랑하는 당신 계명을 향해 제 두 손 쳐들고
당신의 법령을 묵상합니다.

1)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자유롭다. 그리고 부끄럼 없이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2)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손 들어 기
도하며 묵상해야 한다.

- * 에즈 7,10 :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49. (자인)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그것에 희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50. 당신 말씀이 저를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고통 가운데 제 위로입니다.

51. 교만한 자들이 저를 마구 조롱하여도

당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조롱이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 1마카 12,9 :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책에서 격려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필요 없지만,

로마 15,4 :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52.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 계명을 기억하며

주님, 저는 위안을 받습니다.

53. 악인들 때문에 제가 노여움에 사로잡히니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모르는 악인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삶의 지침인 주님의 계명은 삶의 위로가 된다.

54. 당신의 법령이 제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살이하는 이 집에서.

55. 주님, 밤에 당신 이름을 기억하며

당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56.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규범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살이와 같은 외로움에 빠지거나. 밤과 같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법령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 1베드 2,11 :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코엘 12,13 :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 보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57. (헤트)

주님은 저의 몫이시니

저는 당신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58. 제 마음 다하여 당신 자비를 애원하니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고자 약속한다. 이는 주님의 자비가 있을 때 가능하다.

59. 제 길을 되돌아보고

제 발길을 당신 법으로 돌립니다.

60. 당신 계명을 지키려

저는 지체하지 않고 서두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주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곧 지체 없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회개해야 한다.

61. 죄인들의 올가미가 저를 휘감아도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62. 당신의 의로운 법규 때문에

한밤중에도 당신을 찬송하려 일어납니다.

1) 죄인들 곧 적대자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올가미를 놓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2) 보통 사람들은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한밤중’에는 원망하거나 후회한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극복해야 한다.

63. 저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당신의 규정을 지키는 모든 이들의 벗입니다.

64. 주님, 당신의 자애가 땅에 가득합니다.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65. (테트)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 종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66. 당신의 계명을 믿으니

올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제게 가르치소서.

주님께서 선으로 대해 주셨음을 알고, 주님 계명을 믿는다. 그러하니 선량함과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한다.

- * 야고 1,5 :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67. 고통을 겪기 전에는 제가 그르쳤으나

이제는 당신 말씀을 따릅니다.

68. 당신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

당신의 법령을 제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죄지었을 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법령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한다.

69. 교만한 자들이 제게 거짓을 꾸미나

저는 제 마음 다하여 당신 규정을 따릅니다.

교만한 자들이 온갖 유혹을 해도 주님의 규정을 따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70. 저들의 마음은 비겟살처럼 무디나

저는 당신의 가르침으로 기꺼워합니다.

교만한 자들처럼 세상 욕심으로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

- * 이사 6,10 :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 어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71. 제가 고통을 겪은 것은 좋은 일이니

당신의 법령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72. 저에게는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이 좋습니다.

수천의 금과 은보다 좋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법령과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다.

73. (요드)

당신의 두 손이 저를 지어 굳게 세우셨으니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계명을 배우오리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깨우쳐야 한다.

* 신명 32,6 : 주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그분은
너희를 내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희를 만들고 세우시지
않았느냐?

욥 10,8 : 당신께서는 손수 저를 빚어 만드시고서는 이제 생각을 바꾸시어 저를
파멸시키려 하십니다.

74. 제가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두니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저를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함께 기뻐한다.

75. 주님, 당신의 법규가 의로움을 제가 압니다.

성실하시기에 저에게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고 난 뒤에야 주님의 의로운 법규와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다.

76. 당신 종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당신의 자애가 저를 위로하게 하소서.

77. 당신의 자비가 제게 다다르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살리니

당신의 가르침이 저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애로우신 주님의 말씀이 위로를 주며, 주님의 자비
는 삶의 즐거움을 준다.

78. 까닭 없이 저를 억누르니 교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당신의 규정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규정을 깨우치고자 묵상할 수 있도록, 무고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청
한다.

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당신 법을 아는 이들이 제게 돌아오게 하소서.

80.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당신 법령 안에서 제 마음 흠 없게 하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청하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법령을 지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81. (카프)
제 영혼이 당신 구원을 기다리다 지칩니다.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82. 제 눈이 당신 말씀을 기다리다 지쳐
제가 아웁니다. 언제 저를 위로하시렵니까?

삶에 지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일수록 인내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주님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야 한다.

83. 저는 연기 속의 가족 부대 같으나
당신의 법령을 아니 잊었습니다.

가족 부대가 바람이 빠지면 쭈글거린다. 사람도 고통이 깊으면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할 때일수록 주님 법령을 지킴에 충실해야 한다.

* 욕 30,30 : 살갗은 까맣게 벗겨지고 뼈는 열기로 타오르네.

84. 당신 종의 살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언제 심판을 내리시렵니까?

85. 교만한 자들이 제게 구령을 뵈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 저들이.

86. 당신의 모든 계명은 참되건만
그들은 까닭 없이 저를 뒤쫓으니 저를 도우소서.

87.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저를 없애려고 하였지만
저는 당신의 규정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88.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살려 주소서.
당신 입에서 나온 법을 지키오리다.

1)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함에 도우심을 청한다. 적들에게서 구해 주십사 청한다.

2) 적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도록 공경하지만, 한시도 규정의 가르침에 그르치는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 구하여주시길 청한다.

3) 모든 것을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의 계명대로 살 것임을 다짐한다.

89. (라뻬)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당신 말씀은 하늘에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90. 당신의 성실은 대대로 이어지고

당신께서 땅을 굳게 세우시니 그 땅이 서 있습니다.

91. 이들이 당신 법규에 따라 오늘까지 서 있으니

만물이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영원하신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세 대대 영원히 당신의 섭리 곧 정해 놓으신 질서대로 다스리신다.

* 이사 40,8 :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예레 33,25 :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만일 낮과 밤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하늘과 땅의 질서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92. 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이 아니었던들

저는 고통 속에서 사라졌으리이다.

93. 영원토록 당신 규정을 잊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그것으로 저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94. 저는 당신의 것, 저를 구하소서.

당신 규정을 찾습니다.

95. 악인들이 저를 없애려고 노리지만

저는 당신 법을 명심합니다.

96. 완전한 것에서도 다 끝을 보았지만

당신 계명은 한없이 넓습니다.

1) 시인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공통 중에 좌절하고 사라졌을 것임을 고백한다.

2)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기에 이겨낼 수 있었으며, 악인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었다.

3)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하여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주님의 계명은 한없이 다 곧 영원하시다.

* 집회 24,29 : 지혜의 생각이 바다보다 풍부하고 지혜의 의견이 큰 심연보다 깊기 때문이다.

97. (멤)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온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며 온전히 빠져있음을 고백한다.

98. 당신의 계명이 저를 원수들보다 슬기롭게 만들었으니
그것이 영원히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99. 제가 어떤 스승보다도 지혜로우니
당신 법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100. 제가 노인들보다 현명하니
당신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가르침대로 살았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슬기롭고 지혜로
우며 현명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 신명 4,6 :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
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
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지혜 4,8-9 :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햇수로 셈해지지 않
는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
이다.

101. 온갖 악한 길에서 제 발길을 돌리니
당신 말씀을 지키려 함입니다.

102. 제가 당신 법규에서 어긋나지 않으니
당신께서 저를 가르치신 까닭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악한 길에서 회개하였고, 주님의 법규대로 살았기에 어긋나지 않
았음을 고백한다.

103. 당신 말씀이 제 혀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 말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104. 당신의 규정으로 제가 현명하게 되어
거짓된 모든 길을 제가 미워합니다.

말씀에 맛 들이면 그 어떤 것보다 감미로우며, 현명하게 되어 거짓된 길을 분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 * 집회 24,20 :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 예레 15,16 :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105. (눈)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106. 제가 맹세하고 실천하니
당신의 의로운 법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밝히는 빛이다. 그러니 그 가르침을 지키고자 맹세하고, 맹세한 바를 실천해야 한다.

- * 잠언 6,23 : 계명은 등불이고 가르침은 빛이며 교훈이 담긴 훈계는 생명의 길이다.

107. 저는 몹시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 말씀대로 저를 살려 주소서.

108. 주님, 제 입의 찬미 제물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당신 법규들을 제게 가르치소서.

악인들로 인해 받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법대로 살아야 하고, 부족하지만 늘 찬미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 * 히브 13,15 :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109. 제 목숨이 늘 위험 속에 있으나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습니다.

110. 악인들이 제게 그물을 쳐 놓았으나
저는 당신 규정을 벗어나 해매지 않습니다.

악인들로 인한 위험 중에도 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며,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1. 당신 법이 영원히 저의 재산이니
그것이 제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12. 당신의 법령을 실천하려 제 마음을 기울입니다,
영원토록 다할 때까지.

주님의 법이 삶의 자산이며,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르침을 실천함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 예레 15,16 :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113. (사뻍)
저는 변덕쟁이들을 미워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합니다.

‘변덕쟁이들’ 곧 두 마음 가진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언제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114. 당신은 저의 피신처, 저의 방패
저는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주님만이 삶의 보호자이시며, 그분 말씀만이 삶의 희망이다.

115. 내게서 물러가라, 악을 저지르는 자들아.
나는 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116. 당신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가 살리이다.
제 희망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117. 저를 붙드소서. 제가 구원되어
당신의 법령을 늘 살피리이다.

- 1)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악의 유혹이 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 2) 유혹에 빠져 말씀에서 벗어나 행동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늘 주님의 법령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도우심을 빌며 노력해야 한다.

118. 당신 법령에서 빛나간 자들을 당신께서는 모두 업신여기시니
그들의 행실이 거짓된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119. 당신께서는 세상의 악인들을 모두 찌꺼기로 여기시니
저는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

120. 당신이 무서워 제 살이 떨리며
제가 당신의 법규를 경외합니다.

1) 주님의 법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행실은 속임수요 진실함이 없다.

2) 주님은 속임수로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을 업신여기신다. 그러니 늘 주님을 경외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 예레 : 22,19-20 :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죄 찌꺼기가 되어 버렸으니, 나 이제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아 놓겠다. 은과 구리와 쇠, 납과 주석을 용광로에 모아 놓고 불을 뿜어 녹이듯, 나도 분노와 진노로 너희를 모아다가, 그 안에 넣고 녹여 버리겠다.

욥 4,14-15 : 공포와 전율이 나를 덮쳐 내 뼈마디가 온통 떨리는데 어떤 입김이 내 얼굴을 스치자 내 몸의 털이 곤두섰다네.

121. (아인)

저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저를 억누르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122. 당신 종이 잘되도록 보증하시어
교만한 자들이 저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적대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123.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다,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 제 눈이 지칩니다.

124.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 종에게 행하시고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125. 저는 당신의 종,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법을 깨달으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에 지쳐서는 안 되며, 자애로우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신대로 살아야 한다.

126. 저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깨뜨렸으니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시간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법을 어기며 산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127.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128. 저는 당신의 모든 규정에 따라 바르게 걸으며
거짓된 길을 모두 미워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보다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야 한다.

129. (폐)
당신 법이 놀랍기에
제 영혼이 그것을 따릅니다.

주님의 법을 깨달으면, 지키지 않을 수 없다.

130. 당신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이들을 깨우쳐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리석음에 벗어나게 해준다.

131. 당신의 계명을 열망하기에
저는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헐떡이는 것’은 타는 듯한 열기에 시원한 물을 갈망한다는 뜻이다. 것처럼 뜨거운 열망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132.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신 권리에 따라.

133. 당신 말씀으로 제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고
어떠한 불의도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보호해 주신다. 또한 그 어떠한 불의에도 굴하지 않도록 굳건함도 주신다.

134. 사람들의 억압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당신의 규정을 지키오리라.

말씀대로 살다 보면 박해와 같은 고통이 있다 해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

- * 이사 54,14 :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네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루카 1,74 :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135. 당신 얼굴이 당신 종 위에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법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로운 빛으로 삶을 비추어 주신다.

136.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기에
제 눈에서 눈물이 시내 되어 흐릅니다.

시인은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 * 예레 13,17 :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너희의 오만 때문에 숨어 울며 눈물을 흘리리라. 주님의 양 떼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리라.

에제 9,4 :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 놓아라.”

137. (차데)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의 법규는 바릅니다.

138. 당신 법을 정의로,
크나큰 성실로 내려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바른 법규는 우리에게 주시고, 변함없이 지키도록 하셨다.

- * 신명 32,4 : 바위이신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옳바르다.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느님 의로우시고 올곧으신 분이시다.
- 묵시 16,7 : 이어서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139. 제 열정이 저를 불사르니
저의 적들이 당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적들 때문에 시인은 분노한다.

140. 당신 말씀은 지극히 순수하니
당신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141. 제가 하찮고 멸시당하지만
당신의 규정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고통에도 규정을 지킴에 게을리하지 않는다.

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당신의 가르침은 진실입니다.
143. 곤경과 역경이 제게 닥쳤어도
당신 계명이 제 기쁨입니다.
144. 당신 법은 영원히 의로우니
저를 깨우치소서. 제가 살리이다.

주님은 정의로우시기에 그 가르침 또한 진실하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참 기쁨이다. 또한 의로우신 주님의 법을 늘 깨우쳐야 한다.

145. (코프)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저에게 대답하소서.
당신의 법령을 따르오리다.
146. 당신께 부르짖으니 저를 구하소서.
당신의 법을 지키오리다.

주님의 가르침과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147.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148. 제 눈이 야경꾼보다 먼저 깨어 있음은
당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새벽’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며, ‘야경꾼보다 먼저 깨어 있음’은 밤새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음을 뜻한다.

149. 당신 자애에 따라 제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당신 법규에 따라 저를 살리소서.

시인은 주님의 법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한다.

150. 부정을 뒤쫓는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서 멀리 있는 저들이.
151. 주님, 당신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계명은 모두 진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함께하기는 주님을 의지하며 계명에 충실해야 한다.

- * 신명 4,7 :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서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152. 제가 일찍부터 당신의 법을 아니
당신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신 까닭입니다.

시인이 어려서부터 깨달은 법은 주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세우신 것이다.

153. (레시)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으니
제 가련함을 보시어 저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잊지 않도록 도우심을 청한다.

154. 제 소송을 이끄시어 저를 구해 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리소서.
155.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으니
당신의 법령을 따르지 않은 탓입니다.
156. 주님, 당신 자비가 크시니
당신 법규대로 저를 살리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나, 주님의 법규를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157. 저를 뒤쫓는 자들과 억누르는 자들이 많으나
저는 당신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58. 저는 배신자들을 보며 역겨워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들을.
159. 보소서, 저는 당신 규정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살리소서.
160. 당신 말씀은 한마디로 진실이며
당신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합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적들은 많지만, 시인은 주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럴 때
일수록 주님의 법을 사랑하며 규정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

* 요한 17,17 :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161. (원)
권세가들이 저를 까닭 없이 박해하나
제 마음은 당신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권세가들이 핍박한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162. 크나큰 전리품을 발견한 이처럼
저는 당신의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163. 저는 거짓을 미워하고 지겨워하나
당신의 가르침은 사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했을 때보다도 말씀이 더 기쁜 것이며, 주님의 가
르침을 사랑해야 한다.

* 이사 9,2 :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
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
하듯.

마태 13,44 :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164. 하루에도 일곱 번 당신을 찬양하니
당신의 의로운 법규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충만함을 뜻하는 ‘일곱 번’은 시간 계산으로 새벽 6시, 9시, 12시 오후
3시 6시 밤 9시, 자정이다. 르침에 따라 온종일 주님을 찬양한다.

165.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큰 평화가 있고
무엇 하나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평화가 있고, 걸림돌이 없으며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

* 1요한 2,10 :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166. 주님, 저는 당신의 구원을 바라며
당신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167. 제 영혼은 당신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더없이 사랑합니다.

168. 제가 당신의 규정과 법을 지키니
저의 모든 길이 당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바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주님의 법을 사랑하며 지킨다. 그리고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잠언 5,21 : 사람의 길은 주님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분께서는 그의 모든 행로를 지켜보신다.

169. (타우)
주님, 제 부르짖음이 당신 앞에 다다르게 하소서.
당신 말씀대로 저를 깨우치소서.

170. 제 간청이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 말씀대로 저를 구해 주소서.

시인은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171. 저에게 당신의 법령을 가르쳐 주셨기에
제 입술이 찬양을 쏟아 냅니다.

172. 당신의 계명이 모두 의롭기에
제 혀가 당신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법령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그 계명 의로우신 말씀을 찬양한다.

* 로마 7,12 ;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173. 제가 당신의 규정을 선택하였으니
저를 도우려 당신 손을 펴소서.
174. 주님,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한다. 그리고 가르침 대로 살아감이 삶의 즐거움임을 고백한다.

175. 제가 살아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법규가 저를 돕게 하소서.
176. 길 잃은 양처럼 헤매니
당신의 종을 찾으소서.
당신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말씀을 떠나면 양처럼 길을 잃는다. 늘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곧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이사 38,19 : 오늘 제가 하듯이 산 사람, 살아 있는 사람만이 당신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알립니다.

53,6 :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예레 50,6 :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였으니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어 산에서 헤매게 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언덕으로 떠돌아다니며 제 보금자리마저 잊어버렸다.

에제 3,4 :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 집안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루카 15,4-7 :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1베드 2,25 :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법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공격이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가르침에 충실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주님의 법규가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도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역시 무수한 도전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하며,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한다. 끝.